

목포시 소규모 예산 신규 시책 ‘돋보이네’

내년 시민의 소리함·봉사의 날·숲 돋보미 사업 등 추진

사업당 1000만원 이하 투입...효율 높이고 시민 불편 해소

목포시가 내년부터 사업당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똑똑 튀는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 통, 통** 시민의 소리함=목포시는 또 각계각층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통(신문), 통(방통), 통(해결통)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운영한다.

소리함은 목포시청 민원실과 목포버스터미널, 목포역, 목포여객선 터미널, 노인복지회관 등 다중 이용시설 5개소에 설치된다.

목포시 자치행정과는 소리함에 접수된 의견을 매일 한 차례 수거해 담당부서를 즉시 지정하고 7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시민 봉사의 날**=목포시는 도시건설 분야와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시민 봉사의 날’을 운영한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쟁점 민원을 선제적으로 도시건설과 직원들이 매월 정례적으로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봉사의 날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국산하 6개 과 직원 3분의 1이 참

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주요 활동 분야는 철도폐선부지 웰빙 공원 관리를 비롯한 건축 공사장 주변 정비, 노상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단속, 교통질서 지도 단속, 공원 제초 작업 등이다.

특히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과·건설과·교통행정과·건축행정과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은 점에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숲 돋보미 자원봉사**=1365자원봉사를 숲 돋보미 사업과 연계해 목포시에 산재된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관내에는 도시공원 94개소와 도시숲 등 126개소를 포함 관리대상만 225개소에 달한다.

목포시 공원녹지과는 이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청결활동, 잡초 제거 등을 펼쳐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의식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인원은 600명으로 활동시간은 1일 4시간이며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 준다.

◇**민방위 교육통지서 핸드폰 문자 알림 서비스**=목포시는 1인 가구 증가로 민방위 교육통지서 직접방문 교부에 어려움이 많아 내년부터 교육통지서 교부사실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



목포시가 내년부터 1365자원봉사를 활용해 관내 225개소의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평화광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

다. 문자서비스는 교육 훈련일 2주일 전, 1주일 전, 3일 전 등 총 3회에 걸쳐 전송된다.

이를 위해 목포시 안전총괄과는 핸드폰 번호 등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의를 미제출시는 기존 방식대로 직접 방문 교부할 방침이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민관 상호간 편의성 확보는 물론 교육통지서 미 수령으로 인한

교육 불참자의 불이익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5일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주안점을 두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신규 시책 개발에 중점을 뒀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시민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춤추는 바다분수’올해 56만명 관람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목포 평화광장 앞 ‘춤추는 바다분수’가 내년 3월까지 휴식에 들어간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 말까지 208일 동안 95곡의 분수 음악연출과 45곡의 레이저쇼 등 총 496회 공연을 통해 56만3800명(하루 평균 2710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만여명이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은 총 339만명에

달한다. 특히 기념일, 프리포즈, 생일축하 등 1170건의 사연을 소개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기온저하로 시설물 손상이 우려돼 분수 공연을 중단한다”면서 “이 기간 동안 시설물보수·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에는 새로운 연출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시스템 고도화 추진

목포시가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나선다.

목포시는 15일 “유사·중복 웹사이트와 이용률이 낮은 웹사이트를 통합·조정하고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와 역점 시책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 전면 개편과 시스템 고도화작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7000만원, 시스템 고도화에 5900만원 등 총 1억29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편 작업은 확장형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스마트폰 ‘목포시청 앱’과 비콘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개편 내용은 대표 홈페이지 콘

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13개 홈페이지가 통합된다.

특히 목포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노인, 청소년, 복지, 관광 등 별도의 콘텐츠 제작, 비콘으로 해당 페이지를 연결시켜 노인복지관, 학교, 터미널 등에서 맞춤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 업데이트 시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목포시 관내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도 펼친다. 총 사업비 1억9800만원을 들여 갖바위 문화의 거리, 외달도 해수욕장, 유달산, 평화광장, 삼학도 등 모두 9개소에 설치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양을산 ‘유아숲 체험원’ 문열어

1.5ha 규모 친환경 놀이터...야외학습장 등 갖춰

내년 2월까지 특강 프로그램

목포시가 ‘숲 유치원’ 전용 공간 마련을 위해 양을산 삼립육장 내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이 문을 열었다.

유아숲 체험원은 도시 아이들이 숲에서 놀이와 학습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신개념 친환경 놀이터로,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1.5ha 규모로 조성됐다.

아이들이 숲의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숲 교실과 외출로프 오르기 등으로 이뤄진 모험 놀이터, 몸으로 체험하며 놀이를 통해 배우는 공간인 숲속 놀이터, 대피소 등이 마련됐다. 또 나무바람 숲, 꽃 숲, 물놀이 숲, 향기 숲 등을 테마로 한 6000㎡ 규모의 야외체험학습장도 조성됐다.

목포시는 유아숲 체험원 준공을 기념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겨울 숲, 친구들이 놀자’를 주제로 유아숲 체험 겨울 특강을 운영한다.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이번 특강은 겨울철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양선 목포시 산림담당은 15일 “겨울철이지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유아숲 지도사 6명을 전담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눈싸움, 눈썰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지역 어린이들이 최근 ‘양을산 유아숲 체험원’에서 겨울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목포시,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목포시가 최근 이혼율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혼율 증가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위기를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들어 이혼한 부모들이 자녀양육비 지급 약속을 안 지켜 양육비 청구 소송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이혼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전국적으로 17만 가구에 달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7%에 불과하다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목포시 관내에도 한부모 가정이 1700가구(19세 미만 자녀 양육)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와 양육비이행 관리원 등과 연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을 위한 법률지원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간 양육비 관련 상담 ▲자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 여성가족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2월까지 전 세대에 미성년 자녀양육비 지원 연계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한 뒤 3월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올 한 해 ‘위기가족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 위기가정 66쌍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가족캠프를 실시해 위기를 완화했으며, 한 부모·조손가정 75쌍을 대상으로 부모·가족 교육을 실시해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양을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 양을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합!
- 전세값으로 세아파트 사재!
- 계약금 5%!(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을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을산지구 **스카이라이프**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내 집 마련 용이)

39층 초고층 명품조합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분양문의 **351-4610** (062)

양을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을산지구 **스카이라이프**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내 집 마련 용이)

39층 초고층 명품조합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분양문의 **351-4610** (062)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